

## 기획

# “점수만 받으려 듣는 강의 아냐”... “성실한 첨삭 안되나요”

## 학생들의 과제 피드백 요구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강수현(영어학부 2015)양은 지난 학기 성적표를 받아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강했다고 생각한 강의에서 불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30장이 넘는 레포트 과제도 정성을 다 해 작성했고 시험 때는 답안지의 앞 뒷장을 꽉꽉 채워 냈기에 내심 좋은 성적을 기대했던 터였다. 열심히 한 만큼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다. 각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아니면 중간고사 때라도 피드백을 받았다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강 양의 사례처럼, 학습과정에서 교강사로부터의 피드백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신문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학교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업 중 제출한 과제물과 시험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교수/강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8%(39명)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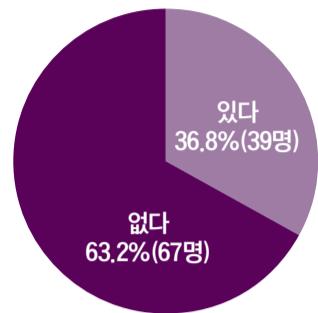
## 시간과 인력의 부족,

## 과제 피드백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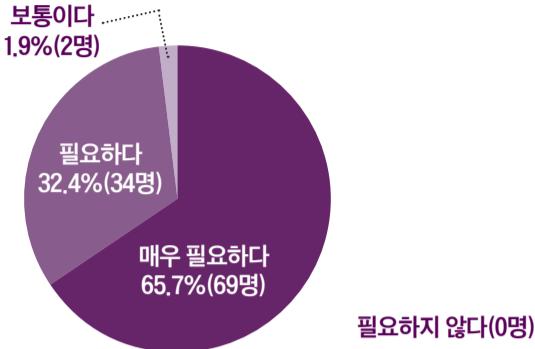
교강사로부터의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강사들은 ‘시간과 인력의 부족’을 이에 대한 원인으로 꼽았다. 한 강의 당 적으면 30명에서 많으면 1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의 과제를 일일이 첨삭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교강사들에게 부여되는 여러 연구활동 및 학내외 봉사활동 등에 대한 책임 역시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교수는 조교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겠지만, 역시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교수의 연구 실적 등에 따라 배정되는 조교의 수가 달라지지만 예산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교수 1인 당 조교 1명이 배정된다. 때문에 설령 조교와 함께 피드백을 진행한다고 해도 고작 두세 명이 수십 명 학생의 과제를 상세하게 첨삭해야 한다는 것인데, 교수 한 명이 보통 한 학기에 2~3개의 강의를 맡고 여러 연구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쉽지만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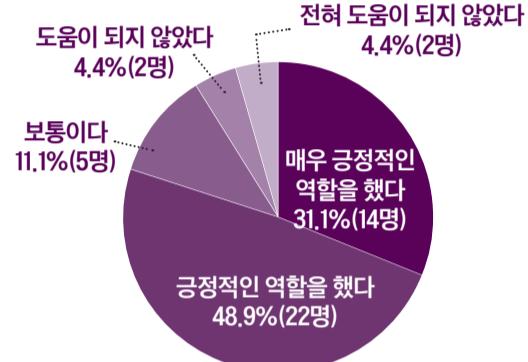
## Q. 수업 중 제출한 과제물과 시험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교수/강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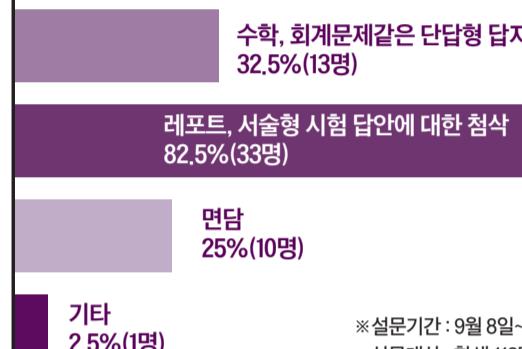
## Q. 교수자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Q. 피드백이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Q. 어떤 종류의 피드백이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설문기간: 9월 8일~9월 11일  
설문대상: 학생 112명  
설문방법: 인터넷설문

은 일이다. 사실 조교와 함께 피드백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교를 두고 있는 모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조교들이 대학원생이니 학부생보다는 전문적 지식이 많은 편이지만, 어쨌든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막 학문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과제 첨삭을 조교에게 맡기기는 애매하다. 단답형 문제 채점은 조교가 해주기도 하지만 레포트 첨삭은 이런 이유로 직접 하는 게 적절하다. 그렇지만 혼자 모든 분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한 학생에 대해 첨삭을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교수자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8.1%에 해당하는 103명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학습 과정에서 피드백을 원하는 것일까. 많은 학생들은 그 이유로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점을 들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응답자

는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주관형 질문에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해주시지 않아서 어디가 잘 못 된지 몰라서 답답했다’고 답했다. 특히 한 응답자는 ‘단순히 점수만 받아 듣는 강의가 아닌데 과제나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니 시험을 위한 시험을 보는 느낌’이라며 ‘4학기 째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어느 수업에서도 개인별 피드백을 해 주신 교수님이 없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피드백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반응도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피드백을 받아봤다고 응답한 39명 중 36명 (80%)이 ‘피드백이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시민교육 수업에서 개인별 상세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김예영(철학 2014)양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께서 과제물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직접 써서 돌려주었다. 이 수업을 통해 글 쓰는 것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좋지 않은 소소한 글쓰기 습관들을 지적해줘 좋았다”고 말

했다.

학생들의 과제와 시험에 대한 피드백 요청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는 ‘과제 돌려받기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과제물을 제출할 때 ‘교수님, 과제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맨 앞장에 부착하면 교강사가 첨삭을 해서 돌려주는 운동이었다. 이후 이 운동의 취지에 공감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가에 ‘과제 돌려받기 운동’이 퍼져나갔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와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는 한계점도 있었다. 한 강의 당 수강생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과 채점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피드백 요청이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학기부터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수님의 빨간 펜’이라는 캠페인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 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지난 학기에 10개

강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이 캠페인은, 이번 학기에는 15~20개 강의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교강사가 해당 강의의 학생들에게 과제와 시험을 첨삭해서 돌려주는 형식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회 황선경(정치외교학 2011) 회장은 “학생들이 교양수업에서 많은 양의 과제를 제출 하지만 과연 자신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좋은 취지의 활동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드백에 대한 학생들의 요청이 점점 나타난 ‘교수님의 빨간 펜’ 캠페인이 타 대학들의 전철을 밟으며 구호로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강의 당 학생 수 축소, 한 전임교원 당 조교 배정 수 확대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교강사의 과제 피드백,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아 보인다. 학사지원과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한 강의 당 수강생 수를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강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조교 수 문제에 대해서도 교무과 측은 “이미 우리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 조교지원을 잘해주는 편에 속한다”며 “조교지원도 등록금으로 하는 것인데 현 상태에서 더 늘리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답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과제가 ‘점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닌 ‘학문적 발전을 위해 수양하는 것’이 되려면 학습 피드백이 활발히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학습 피드백은 학생들의 수업환경에 큰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학교 측도 공감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학생들의 인식 개선도 요구된다. 의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학생들이 때때로 피드백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며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부족함을 꼬집으려는 게 아니라 개선 방향을 일리로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학습 피드백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대학이 교수와 학생이 함께 발전하는 학문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9월 셋째 주(9.14~9.18)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미래는 준비된 자의 세계”

### ■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사 명	일 시	장 소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 채용설명회	9.14(월) 12:30~14:30	청운관 B117호
IBK기업은행 채용면접	9.14(월) 10:00~18:00	청운관 1층 상담실
IBK기업은행 채용설명회	9.14(월) 15:00~17:00	온라인 채용면접
파리다이어트 호텔 부산 채용설명회	9.14(월) 16:00~17:3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빙그레 채용면접	9.15(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골프존 채용면접	9.15(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SK네트웍스 채용면접	9.16(수)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SK증권 채용면접	9.16(수)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CJ 채용설명회(부드빌, 오소평)	9.17(목) 14:30~16:30	청운관 B117호
CJ 엔터테인먼트 채용면접	9.17(목) 16:00~18:30	청운관 1층 상담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부문: 경희대학교 대체로 학과 및 출신 학교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더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증조선 일정: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 ■ 특강

특강 제 목	일 시	장 소
합격하는 저수준 작성법 1 (배상복 교수님)	2015.09.16.(수) 13:00~15:00	청운관 B117호
금융권 취업상담 (송승영 교수님)	2015.09.16.(수) 17:00~18:00	네오관 104호
외국계기업 취업 프로세스 (전은명 교수님)	2015.09.18.(금) 17:30~19:30	청운관 B117호

### ■ 취업진로지도부 맞춤 컨설팅

- 대상: 경희대학교 학부 대체로 출신생
-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신청내용: 신청내용은 대체로 출신학교 출신학과 출신전공 등

신청유형	컨설턴트	일 시	장 소	신청방법
취업	봉사별	월 ~ 금	오피스홀 354호~356호 제2법107~2호	중인정보시스템 -수업/성적/ 상담, 멤버에서 신청/컨설팅트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On Line	한상복 팀장 (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신청내용 확인 후 신청

\* 상당 신청자는 신청내용은 대체로 출신학교 출신학과 출신전공 등

\* 주의사항  
- 상당일 날 취업설명회에 대한 출석 가능, 취업설명회 출석여부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로 하는 경우 당일 부여부서에 신청(필수)

-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www.khu.ac.kr](http://http://www.khu.ac.kr)

페인트북 <https://www.facebook.com/khujob>